

# 1920년대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

## 호전적 개혁과 반전적 경제발전

20200422 이수빈

“현대인의 입장에서 1920년대를 바라봤을 때 일본이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가?”라고 묻는다면 반전적 경제 발전을 택했을 것이다. 국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하여, 전쟁이라는 폭력적 도구 없이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이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. 하지만 1920년대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선택하라면 반대로 호전적 개혁을 택하겠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당시는 서구 제국주의 시대였다. 서양 열강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행해지던 때였다.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평화주의를 고수한다는 것은, 한 나라의 국민 입장에서 오히려 지도자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. 마치 ‘싸움 속에서 같이 때리지 못하고 맞기만 하는’ 모양새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. 호전적인 태도는 이상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. 그래서 현대인의 입장이라면 일본의 대외침략에 대해 반대하겠지만, 당시 일본인의 입장이라면 평화주의보다는 제국주의에 합류하는 것이 더 끌리는 선택이었을 것이다.

둘째, 전쟁과 같은 대외적 문제 외에도 고질적인 국내 문제였던 경제불평등을 해결해줄 방안을 지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. ‘호전적 개혁’의 선택지에는 통제경제를 통한 근본적인 정치/경제개혁이 포함되어 있었다. 그러나 보수파와 재계의 국제 평화주의는 경제발전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경제적 산물의 분배 문제에는 무심했다. 이러한 두 선택지 중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. 국민들의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경제불평등을 해결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.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었을 것이다. 앞서 언급했듯, 전쟁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. 하지만 도덕과 현실적 이익 중 갈등하는 것은 1920년대 일본인이든 현대인이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당시 일본인들의 현실적 선택이 조금은 이해될 것이다. 그 예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들 수 있다. 트럼프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추방하고, 한국과 일본 등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인상하고,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을 쌓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등, 한 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주변 국가들과 담을 쌓고 지내겠다는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. 그러나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당선이었다. 미국 국민들은 왜 사회적, 국제적으로 비난받던 트럼프를 선택했을까? 지도자가 국제 정세보다 자기 국민들을 먼저 고려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. 즉, 사회적으로 ‘도덕적’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‘현실적 이익’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의 공약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이다. 1920년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. 국제 평화주의를 고수하면서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보다는, 오히려 주변 국가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내 경제 개혁을 감행하는 전략이 국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 느껴졌을 것이다. 그리고 나 또한 같은 상황에 있다면 1920년대 일본 국민들과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.